

DC21-9707035

해 설 자 료

—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

1997. 7

농 립 부
축 산 국

빈 면

목 차

I.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배경	3
II. 한우산업의 현황	4
III. 주요정책지표 점검	5
IV. 주요시책과제의 설명	8
1. 한우전업농 1만호의 선정 및 지원방안	8
2. 30천호의 개량농가 육성방안	9
3. 제주도의 송아지생산·공급기지화	11
4.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추진배경, 재원조성 방법, 계약 및 보전절차등과 추진일정	12
5. 조사료생산 및 공급확대 방안	14
6. 농가의 자가배합사료생산 지원확대	16
7. 한우개량 촉진대책	17
8.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계열사업 주체로 육성	18
9. 쇠고기고급육생산 및 지역별 브랜드화 추진	20
10. 축산물등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21
11. 쇠고기 부분육 경매제 시행	22
12. 식육처리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23
13. 특수가축공제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	24
14. 고품질 한우고기의 대일수출 추진 계획	25
15. 한우연구소 설치방안	26

빈 면

I.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배경

◆ 2001년 수입개방 이후에도 한우산업이 육성발전 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

- ☐ 지난 '93년 쇠고기 패널 및 UR협상 타결결과로 소 및 쇠고기 HS품목 28개 중에서 '97.7월1일 20개 품목이 개방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나머지 8개 품목이 개방되어 완전자유화 된다.
- ☐ 이러한 소 및 쇠고기 개방일정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93년 문민 정부 출범이후 42조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한우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농림업중 쌀 다음으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96.4월 광우병파동과 '96.12월이후 계속되어온 소값하락과 50만호 이상의 한우농가들은 장래 한우산업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으며, 2001년 개방후에도 과연 한우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한우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정부가 제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97.2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도 UR타결이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쟁력강화 등 한우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요정책 지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 이를 근거로 수입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농가경영지침서로 제공하기 위하여 백서를 발간
- ☐ 본 대책수립과정에는 농가대표, 생산자대표, 학계, 연구기관등 축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역간담회, 신한국당 정책토론회와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한우산업의 현황

1. 한우산업의 위치

◆ 농산물 생산액중 한우의 비중은 매년 증가 ◆

□ 국민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농림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업생산액중 한육우 비중은 축산물중에서 가장 높음

- 국민총생산액중 농림업 비중 : ('85) 11.6% → ('95) 5.9% (Δ 5.7%)
- 농림업생산액중 축산업 비중 : ('85) 9.9% → ('95) 11.7% (1.8%)
- 축산물생산액중 한육우 비중 : ('85) 28.5% → ('95) 29.8% (1.3%)

□ 농산물 생산액중 쌀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우의 비중은 증가

- 한우/쌀 생산액대비 : ('90) 14.1% → ('95) 26.3% (12.2%)

2. 한육우 사육동향

◆ 호당 사육규모 증가로 규모화 추세 ◆

□ '83~'84 소값파동과 쇠고기 수입개방의 진전등으로 한우사육농가는 계속 감소되고 경쟁력강화사업에 의한 시설지원등으로 전업규모 농가가 증가됨

- 농가호당 사육두수 : '85년도 2.4두에서 '96년도에는 5.5두로 증가
- 30두이상 사육농가수 : '85년도 2,558호에서 '96년도에는 10,636호로 4배이상 증가

3. 쇠고기 수급동향

◆ 쇠고기 소비량은 급신장세 ◆

□ 국민소득 증가와 경기 상승영향으로 외식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쇠고기 소비량은 '85년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9.4%씩 계속 늘어남

- 쇠고기 소비량 : ('85) 129.5천톤 → ('96) 323.9천톤

(1인당)	(2.9kg)	(7.1kg)
- 국내산	117.6	174
- 수입육	8.3	149

Ⅲ. 주요정책지표 점검

1. 개방시 경쟁가능예상가격 200만원

□ GATT/BOP 졸업이후 쇠고기 패널과 UR협상타결로 쇠고기 수입 개방일정이 확정되었으며, 우선 1차적으로 '97.7.1부터 소 및 쇠고기부산물(머리, 꼬리, 족)과 염장육, 통조림 수입이 허용되고, 2001년 1월1일부터는 쇠고기 뿐만 아니라 생우도 수입이 자유화 되기 때문에 정부는 '93년 10월에 품목별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한우에 대한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하였음

□ 본 대책의 주요 쟁점이 되는 2001년 개방시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한우의 예상가격 수준을 200만원(한우 큰수소 500kg기준)을 정하여 농가의 경영지표로 제시한 바 있음

○ 산정기준은 2001년 개방시점에서 국내 식육유통업자가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수입쇠고기를 구입하는 방안과 산지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유통시키는 방안을 비용측면에서 비교함

$$\begin{array}{c} - 944\text{천원}(500\text{kg기준}) \times 1.8(\text{품질계수}) + 340\text{천원}(\text{부산물수입}) \approx 2,000\text{천원} \\ \hline 2,039\text{천원} \end{array}$$

□ 이에 양축농민들은 '97년 소값하락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생산비를 도외시킨 비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목표가격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94년 목표가격 산정시와 비교 쇠고기 수입가격, 환율, 육질등급등 '97년 현재의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결과 냉동육이나 냉장육 공히 200만원수준으로 산출됨

- 그러나 '95.2부터 시행중인 축산물등급제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등급별로 차등화 되고 있고,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급육생산 촉진을 위해 1등급에 대하여는 경쟁예상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였음
 - 냉동육 : $1,039(500\text{kg기준}) \times 1.8(\text{품질계수}) + 248(\text{부산물수입}) - 93(\text{운송} \cdot \text{도축료}) = 2,061\text{천원} \approx 2,000\text{천원}$
 - 냉장육 : $1,039(500\text{kg기준}) \times 1.2(\text{냉장육비용증가}) \times 1.4(\text{품질계수}) + 248(\text{부산물수입}) - 93(\text{운송} \cdot \text{도축료}) = 1,937\text{천원} \approx 2,000\text{천원}$
 - 1등급 : $2,000\text{천원} \times 1.15 = 2,300\text{천원}$
- 당초 경쟁가능예상소값 수준은 그동안 목표가격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를 최저지지가격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의도적인 소값하향정책이라는 양축농가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음

2. 연도별 가격안정수준 설정

< 연도별 가격안정수준 >

	2001	2000	'99	'98	'97	비 고
1등급	230만원	240	250	260	270	1등급과 일반등급 (2등급)과의 가격비 = 115:100
일반 (2등급)	200	210	220	230	240	

□ 설정경위

- 2001년 수입개방을 앞두고 수입쇠고기와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가 스스로 구조조정과 품질고급화 노력을 통해 수입개방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개방시 경쟁가능한 예상소값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농가에 경영지표를 제시한 가격임

- 그동안 정부는 산지소값이 하락할 경우 연도별 가격 안정 수준 유지를 위해 소 수매실시와 수입쇠고기 방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왔음

- '96년도에는 5.29~8.14까지 생체 kg당 5,000원(500kg기준시 250만원)에 9,974두의 큰수소를 수매하였으며
- '97년도에는 1.25~현재까지 생체 kg당 4,800원(500kg기준시 240만원)에 57,024두(7.1현재)의 한우를 수매하였음
- 향후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와 전업농 1만호 육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고급육생산촉진등으로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을 기하고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으로 연도별 가격안정 수준을 맞춰 나가겠음

3. 개방시 한육우 적정사육두수 250~260만두

- 2001년 개방이 되더라도 국내 쇠고기 수요량의 보다 많은 부분을 한우고기로 공급하는 것이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개방에 충격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우를 희소성있는 고급육산업으로 육성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시장차별화 전략으로 국내 수요의 30%(육우 포함 40%)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1년 국내 쇠고기 수요량은 총 456천톤으로 추정되며, 250~260만두의 한육우를 사육할 경우 국내산은 183천톤(한육우 160, 젓소 23)으로 40% 수준을 공급하게 됨
 - 2001년 수요량 : 456천톤
 - 국내 공급량 : 183천톤 (40%)
 - 한육우 : 260만두×연간도축율 0.3×생체중 523kg×정육율 0.39 + 160천톤
 - 젓소 : 55만두×연간도축율 0.2×생체중 550kg×정육율 0.39 + 23천톤

IV. 주요시책과제의 설명

1. 한우전업농 1만호의 선정 및 지원방안

- 수입개방이후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향상, 품질고급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정예화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 육성이 필수적임
 - '96기준 한육우 사육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513천호 2,844천두중 50두이상 전업규모의 경우 사육농가는 0.5%인 2.8천호에 불과하고, 사육두수는 8.4%인 240천두에 불과하여 미국, 호주등 쇠고기 수출국과 경쟁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정부에서는 '97하반기중에 비육전업농 5천호와 일관사육 전업농 5천호 총 1만호의 전업농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비절감을 위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되
 - 조사료기반확보 ⇒ 일관또는 비육사육 ⇒ 고급육생산 ⇒ 브랜드화 ⇒ 농가직거래 체계로 한 경영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 축협중앙회에 컨설팅사업본부를 설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전업 대상 농가별로 지도 육성할 것임
- 번식의 경우 다두사육 할 경우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관리의 어려움, 노동력 투하증대에 따른 인건비증가등으로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송아지를 낳아 기르는 일관사육농가 위주로 육성하고 사육규모 5 두이하의 부업규모번식농가에 대하여도 '97.7부터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실시하여 송아지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임

2. 30천호의 개량농가 육성 방안

- 한우개량은 면단위 지역중심의 「개량단지제도」와 개별농가 중심의 「개량농가제도」 2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개량단지는 '7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써 '96년말 현재 250개소에서 133천두의 암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개량농가란 단지밖에서 한우암소 10두이상을 사육하면서 5두이상 등록우를 갖고 있는 농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5,700호에서 45천두의 암소가 관리되고 있어 총 178천두의 우량암소가 관리되고 있음
- 개량체계를 보면 개량단지 또는 개량농가에서 사육중인 암소들을 외모심사한 후 모양새가 우수한 암소를 선발하여 기초등록을 하고, 기초등록된 암소들의 공통결점을 찾아서 동 결점에 강점을 가진 씨수소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토록 지도하므로써 어미소보다는 좀 더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되도록 하며, 생산된 송아지를 혈통등록을 한 후 큰소로 육성·선발하여 번식에 사용하고 어미소를 도태시키는 과정을 매년 계속하므로써 사업 참여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그러나 「개량단지제도」 참여농가의 경우 사육규모가 평균 2.5두로 매우 영세한 관계로 어미소의 도태 및 송아지의 육성·선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개량활성화에 문제점이 있어 2002년도까지 「개량농가제도」 참여농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모화를 이룩하여 개량을 촉진할 계획임

- 개방후 한우적정 사육두수를 250~260만두로 볼 때 가임암소 두수는 110만두내외가 되며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30만두의 우량암소 관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육두수 10두 규모의 3만 농가를 필요로 함

- '96년말 현재 한우개량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중 5두이상 등록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3,700호인 점을 감안할 때 '97년부터 매년 2천 농가내외를 개량농가로 신규참여시켜 2004년도까지 개량농가 3만호를 육성할 계획임

3. 제주도의 한우송아지 생산·공급기지화

- ☐ 제주도에서 외국산 육우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도 북제주군 소재 송당목장에서 외국산 브라만종 227두를 입식하면서부터이며, 이후 싘파거트루디스, 심멘탈, 샤로레 종들이 도입되면서 계획적인 교배가 되지 못하고 난교잡이 이루어 지므로써 전체 한우가 교잡종화된 것임
- ☐ 외국산 육우의 장점은 한우보다 발육이 잘되어 고기생산량이 많은 것인데 과거에는 쇠고기값이 중량이 같으면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체계였던 관계로 교잡종이 한우보다 소득이 높음에 따라 교잡종 사육이 성행하게 되었던 것임
- ☐ 그러나 '92년부터 육류도체등급제가 실시되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양(量)보다는 질(質)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쇠고기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교잡종 사육이 한우보다 불리해짐에 따라 제주도민의 소 품종 선호도가 한우쪽으로 변화되었음
- ☐ 제주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경사도가 완만하여 국내 전체 초지면적 63천ha의 약 35%인 22천ha의 초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초지를 조성할 적지도 많고 초지이용기간도 육지보다 1~2개월이 더 길어 값싸게 한우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됨
- ☐ '96년말 현재 제주도에서는 2,700여 농가에서 육우 34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한우는 8천두에 불과하여 조사료생산기반 확충과 마을공동목장 확대 조성등으로 육지의 우량 한우암소 입식을 실시하여 2004년도까지 한우사육두수를 8만두까지 증식시켜 매년 한우송아지 약 4만두 내외를 생산하는 송아지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임

4.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추진배경, 자원조성방법, 계약 및 보전절차등과 추진일정

- ☐ 쇠고기 수입개방시 외국산 수입쇠고기의 급격한 국내시장 잠식으로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비육농가는 큰소 출하후 송아지 구입시 하락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나, 번식농가는 송아지 재생산의욕을 상실하여 소 사육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높음
- ☐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번식농가가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는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송아지 실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이하로 하락 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제도의 일종임
- ☐ 추진방법은 한우번식우(젖소를 제외한 육우 및 교잡우 포함)를 사육하는 자로서 향후 송아지를 생산코자 하는자중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희망자는 세부지침이 정하는 요령에 의거 축협과 계약을 체결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 기관등에서 공익목적으로 경영하는 기관과 단체는 제외됨
- ☐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계약기간내에 생산가능한 송아지 두수를 감안하여 매년 1~3월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요령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하면 연장이 가능함
- ☐ 소요 재원은 4,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축산발전기금에서 80%,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농가가 각각 10%씩 부담토록하며 농가부담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

- 「안정기준가격」은 농가, 학계, 소비자단체, 축협, 행정기관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송아지생산안정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송아지 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및 사육동향, 자가노력비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약개시기간 전년도말까지 연1회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

- 안정기준가격 수준은 비육우 두당 20~30만원, 번식우 두당 30~40만원정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수준에서 각 연도별 경영비를 포함해서 산정하게 됨

- 동 제도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 '97.7~12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실시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며,
 - 세부시행지침 수립 및 관계자 교육실시('97.8~12)와
 - 계약농가모집 및 2개군을 지정 모의연습 실시('97.7~'98.6)를 거쳐
 - '98. 7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됨

- 일본의 경우 '91.4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90년이후부터 「육용자우 생산자 보급금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보증기준가격보다 합리화목표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송아지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합리화목표가격 수준까지는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주나, 합리화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방정부와 농가에서 각 25%씩 부담토록하여 경영합리화 목표가격 수준으로 낮춰나가고 있음

5. 조사료 생산 및 공급확대 방안

- 지난 '67년부터 '96년까지 조성된 초지는 총 131천ha이며, 이중 51.9%에 해당하는 68천ha가 초지에서 제외되어 현재 63천ha가 남아 있으며, 사료포 및 답리작 사료작물 132천ha등 195천ha가 조성 이용되고 있으나, 조성된 초지도 관리부실등으로 상급초지는 전체초지의 35% 수준인 22천ha에 불과함
- 이렇게 초지의 면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 농가호수 감소와 농촌노동력부족으로 초지관리가 부실화되고
 - '91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부실초지를 산림으로 환원토록하여 초지제외 면적이 늘었으며,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업용 토지의 수요가 증대되어 초지전용 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 토지가격의 상승과 보전임지의 과다('96년 4,426천ha, 전산림의 69%)등으로 신규초지조성 적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 정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조사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 초지조성 기술교육 및 홍보와 함께 초지조성비의 전액(50%보조, 50%용자)을 지원하여 조사료생산기반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 조성된 초지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종자대, 비료대등을 지원하며,
 - 한계농지 및 구릉지를 활용하거나 답리작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와 비료대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음.

< '9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380억원) 세부지원 메뉴 >

- ° 신규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
- ° 사료작물(전작·답리작) 재배
- ° 볏짚사료화 지원(암모니아처리, 생볏짚사알리지)
- °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지원
 - 부지정지, 용수·전지·영구목책시설, 진입로·목로개설
- ° 조사료생산기계·장비 지원(트랙터, 파종기, 예취기등)

□ 따라서 '97하반기 전업농가 선정시 전업농이나 개량농가, 한우축산단지, 계열화업체등 대상자 별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신청량을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을 확정 지원하고, 현행 50%인 초지조성 보조지원율의 상향조정 검토, 조사료 기계화단지육성등 조사료 생산관련 지원제도 개편등으로 국내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 조사료 시장접근물량(MMA)을 조기 증량조치하여 농가에서 적기에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개발을 위한 생산투자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해외조사료 자원개발 및 공급확대를 기해 나가고자 함

6. 농가의 자가배합사료생산 지원확대

- ☐ 양축농가의 사육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고유의 독특한 브랜드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해 자가배합 급여에 대한 농가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 ☐ 농가에서 사료를 자가 배합하여 가축에 급여하기 위해서는 배합용 사료원료의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료용 곡물의 경우 개별양축농가가 축협에 공급요청을 하면 축협은 배합사료용 곡물 구매시 이를 함께 구매하고 파쇄후 어분이나 석회석 등을 혼합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하고 있음
- ☐ 그러나 일부 양축농가는 임가공비용 절감을 위해 조합 또는 자가 배합소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알곡사료원료 구입을 원하고 있어 향후 우리부에서는 권역별로 사료공급기지를 설치하여 알곡상태의 곡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사료용 수입곡물의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등 생산자단체와 전업농을 대상으로 자가배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농가 자가배합 활성화를 유도하겠음

7. 한우개량촉진 대책

- ☐ 한우의 개량방향은 발육능력과 육질능력을 향상시켜 잘 자라면서도 맛이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로 만드는 것임
- ☐ 한우 송아지생산방식이 과거에는 자연종부에 의존하였으나, 인공수정 기술의 발달로 90%이상의 농가가 인공수정에 의하여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량방향에 맞는 보증 씨수소를 선발하여 이들의 정액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체계를 개선하고 선발강도를 강화하므로써 보다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토록 하기 위하여
 - 11개 기관에서 분산실시되던 당대검정을 1개소로 통일하므로써 사료등 검정환경차이에 따른 오차를 제거하여 후보씨수소 선발의 정확도를 높이고
 - 1개 기관에서 실시되던 후대검정을 고산지, 중산간지, 평야지 등 3개소로 분산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어느 기후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보증씨수소를 선발하며
 - 후보씨수소의 선발비율을 20%에서 10%(200두중 40두 선발 → 1,000두중 100두선발), 보증씨수소의 선발비율을 50%에서 30%(40두중 20두 선발 → 100두중 30두 선발)로 강화하므로써 보다 우수한 소들이 선발되도록 할 것임.
- ☐ 또한 9개도 종축장에 「수정란 생산·공급센터」를 설치하여 우량수정란에 의한 쌍둥이 송아지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성(性)감별된 수정란을 공급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성의 송아지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8.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계열사업 주체로 육성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은 수입개방에 대비 국내축산물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까지 12개소를 건설하여 국내 육류유통량의 30~40%를 담당하게할 계획임.
 -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생산, 도축·가공, 판매를 일관처리하는 한우산업의 계열주체로 육성하여,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하고 가공,판매,수출 등을 종합처리장이 담당하는 유통계열화시스템을 구축
 - 시설규모는 하루에 소를 100두 도축가공하는 대규모시설이 7개소, 대규모의 절반시설규모인 중규모가 5개소이며 이는 연간 약 30만두를 도축가공할 수 있는 규모임
-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계열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비육전업농가, 일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개소당 200~400농가와 연계하여 총 8천농가와 계열화를 추진하며 LPC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대하여 시설자금, 거세장려금등 한우관련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함
 - 송아지 거세우 출하시 마리당 5만원씩의 거세장려금 지원과 송아지 생산기지(제주도)로 부터 우량송아지를 공급받는 송아지정보시스템(Cattle-Bank System)활용
- 또한 한우고급육을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으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2003년까지 총 1,100개소의 판매망설치를 지원키로 하였으며 판매망 구축이 완료되면 자체 판매조직을 통하여 50%이상 판매할 계획임
 - LPC 개소당 대규모는 100개소, 중규모는 50개소의 판매점설치를 지원하며 각 개소당 1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임

< 축산물종합처리장 현황 >

선정	업 체 명	소 재 지	표준사업비			처리능력(1일)	
			계	읍자	자담	소	돼 지
'94	안성축산진흥공사 (안성군수)	경기 안성	백만원 15,332	12,091	3,241	두 100	1,500~2,000
	서울경기양돈조합 (조합장)	경기 포천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동 아 축 산 (이인중)	경북 군위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95	북 원 농 산 (윤영수)	경기 남양주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부 천 산 업 (박선옥)	전북 익산	9,761	8,191	1,570	100	1,500~2,000
'97	진 승 산 업 (박기수)	경기 연천	8,000	6,320	1,680	50	750~1,000
	하 이 미 트 (장갑순)	강원 원주	8,000	6,320	1,680	50	750~1,000
	박달재한우마을 (조영수)	충북 제천	8,000	6,320	1,680	50	750~1,000
	푸 른 육 원 (홍성군수)	충남 홍성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거 평 유 통 (최의성)	전남 장성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명 신 산 업 (김상울)	경북 포항	8,000	6,320	1,680	50	750~1,000
	거 창 축 협 (조합장)	경남 거창	8,000	6,320	1,680	50	750~1,000
'95	한국냉장(주) (신건식)	충북 청원	32,400	22,700	9,700	120	1,500

9. 쇠고기 고급육생산 및 지역별 브랜드화 추진

- 오는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시에는 값싼 외국산 고급냉장육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처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육농가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우선 육우화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심으로 20~60호 정도의 농가에서 1,200~1,300두 규모의 거세한우를 사육하여 1일평균 2~5두의 출하가능규모로 육성하는 한편, 한우단지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현재의 49개소의 한우단지를 오는 2001년까지 60개소로 늘려 쇠고기 고급육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고급육생산 농가에게는 조사료 생산자금과 거세장려금을 지원하고 한우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한 각종 정책지원자금을 고급육생산 조직체에 직접 지원하고, 군단위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고급육을 생산하여 자기상표를 부착시켜 브랜드화함으로써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갖추도록 함

- 쇠고기를 브랜드화하고 있는 업체는 '97현재 축협중앙회의 “목우촌” 경기도 양평 “개군한우”를 비롯하여 69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는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하는등 체계적인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따라 오는 2001년까지 100개소이상의 쇠고기 브랜드업체를 육성하고 브랜드업체는 특허청 상표등록을 하도록 하고 농산물 검사소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실시해 주므로써 고급쇠고기 품질을 공적으로 공증해 주는 등 체계적인 육성시책을 강구하고자 함

10. 축산물등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육류소비구조도 양에서 질 위주로 바뀌에 따라 육질과 육량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등급을 해주는 육류도체 등급제를 '95.2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소비자는 구입하는 고기의 품질을 등급별로 식별하게 되어 품질이 우수한 육류는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낮은 고기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한편, 생산농가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게 되고 등급결과를 가축개량 지표로 활용 더 좋은 가축을 생산하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선한 양질의 육류를 공급하므로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음

- 쇠고기 등급제는 도축장에서 지육을 냉장육상태로 일정기간 처리하여야 등급판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품성이 높은 냉장육 형태로 유통이 가능하므로 현재에는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와 77개 시군에서 도축되는 소의 93%가 등급을 받고 있으나 '96년부터는 시설이 미비되어 등급판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도축장(35개소)의 시설을 연말까지 개선하여 '98년부터는 도서·벽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11. 쇠고기 부분육 경매제 시행

- 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은 대부분 소비지 중심의 도심지에 위치함에 따라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폐수처리시설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산지에서 소비지로 생축을 수송함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크고 수송감량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육류유통은 산지에서 바로 도축·가공처리 하고 냉장처리한 지육과 부분육을 소비지 시장에 공급하므로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는 신선육을 공급하고 유통비용 절감이 생산자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함
- 정부에서는 오는 2000년도까지 최신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 12개소를 산지에 건설하여 이들을 계열주체로 육성하므로서 도축과 가공이 도시중심에서 산지중심으로 전환되고 유통의 형태도 생체 또는 지육에서 정육·부분육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이에따라 '98년부터는 산지에서 도축·가공된 부분육을 기존의 도매 시장과 공판장에 상장시켜 경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97년에 완공된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에 부분육 경매시설을 설치하고 '99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축협중앙회 부천공판장에는 부분육 전용 매장을 설치하므로서 부분육 경매제를 점차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12. 식육처리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식육처리기능은 축산물유통에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식육처리업이 3D업종으로 취급되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부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식육유통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취약한 분야이므로 식육처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대책이 필요함
- 정부에서는 식육처리전문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지난 '95년에 국가기술자격법규정에 의한 식육처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고 식육처리기능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부터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식육처리전문가 양성을 위해 1개월 과정으로 매년 200명씩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총 46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음. 또한 '98년부터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축협중앙회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식육전문기술훈련원'을 설치키로 하고 '97말에 완공시켜 오는 2004년까지 총 3,000여명의 식육처리기능사양성을 양성화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이 식육판매업소를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허용하는 등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므로서 식육처리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13. 특수가축공제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

- 특수가축공제는 양축가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질병이나 화재등 불의사고로 폐사되거나 절박도살될 경우 양축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양축농가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대비하는 가축에 대한 일종의 생명보험제도이며, 양축농가들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병든소, 죽은 소의 시중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97~'98년도에 축협중앙회 주관하에 18개조합을 선정하여 한우, 젓소 70천두를 대상으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생후 6개월이상 만 13세이만의 한우, 육우와 생후 6개월이상 만 8세미만의 젓소로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공제기간은 6월과 1년중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제료는 한우의 경우 0.44%, 젓소는 2.42%로서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음

< 시범사업실시 대상조합 : 18개 조합 >

한 · 육우	젓 소
포천, 횡성, 철원, 예산 부여, 함평, 장수, 전주 사천, 영주, 달성, 제주	서울우유, 강원낙협 청주우유, 광주전남우유 지리산낙협, 동진강낙협

-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특수가축공제 시범사업을 평가 분석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97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적정한 공제율, 보상범위 등 추진방안을 결정하게 되며, 오는 '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므로서 양축농가에게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

14. 고품질 한우고기의 대일 수출추진 계획

- 일본은 연간 990천톤의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중 62%에 해당되는 610천톤을 수입육으로 공급하고 있고, 우리 한우고기와 맛이 비슷한 화우고기는 연간 167천톤(17%)이 공급되고 있음

※ 일본쇠고기 소비현황 ('96.4~'97.3)

- 총 소비량 990천톤, 수입육 607, 국내산 383 (화우 167, 기타 216)

- 한우고기는 일본화우고기와 비교시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일본화우와 동일하게 규격과 품질수준을 높일 경우 수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과거 '86~'88년에도 7,603두의 한우를 일본에 수출한 경험이 있음

- 가격비교(도매시장 가격) : (한우A) 7,754원/kg (화우B)14,141, 가격비(B/A) 1.8배

- 연도별 대일한우수출 실적 : ('86) 1,080두, ('87)2,302, ('88) 2,613, ('89) 880

- 앞으로, 고품질 축산단지를 수출기지로 집중 육성하고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을 갖춘 업체와 계열화하여 한우 냉장육의 대일수출을 본격화하고 수출정착시까지 포장비·운송비 등 수출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잔여육 처리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검토 조치할 계획임

- 또한, (주)한국물산의 동경과 오사카 상설전시판매장을 이용하여 한우고기 특판을 실시, 일본의 소비자에게 한우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내 한우고기 소비기반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

- 다만, 생우수출은 부메랑효과 예방을 위해 거세한우로 한정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평창축협에서는 금년중 거세 수송아지 200두를 일본에 시험 수출할 계획임

15. 『한우연구소』 설치 방안

- ☐ 우리가 사육중인 가축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100년미만의 짧은 사육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부 재래가축들이 사육되고 있으나 사육농가 및 두수가 미미하여 산업적 위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그러나, 한우는 반만년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도 총 농가호수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0만호의 농가에서 290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도 1조 8천억원으로 쌀 다음으로 중요한 농가소득원으로써 위치를 점하고 있음
- ☐ 이러한 주요 위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육우보다 발육이 떨어져 경제성이 적은 품종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초식가축인 관계로 초지등 연구기반 조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세대간격이 길어 연구 성과 거양에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한우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사람도 적었을 뿐만아니라 연구비등 재정적 지원도 충분치 못해 왔음
- ☐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쇠고기 소비형태가 양(量)중심에서 질(質)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한우쇠고기의 품질우수성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므로써 2000년대 축산물 수입자유화시대에도 농가의 주요소득원으로 살아 남을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산발적, 부분적으로 되어 왔던 한우 관련 연구를 집중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동 연구결과를 농가에 보급하므로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대관령지소와 남원지소를 「한우연구소」로 확대 개편키로 하고 동 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하여 협의중에 있음